사슴의 주요 질병관리

김 찬 규
〈역촌동물병원장〉

〈지난호에 이어서〉

9. 산과 질병(Obstetric disease)

① 난산(Dystocia)

원인 : 분만에 있어 태아가 과태되거나 태아의 위치의 잘못, 산도의 협착 등 자궁의 이상 등으로 분만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산이라 한다.

증상 : 태아가 너무 커 산도의 통과가 불가능하거나, 분만시 태아가 자궁내나 산도에서 비정상적 위치로 나오는 경우, 즉 앞다리 하나만 나온다든지 머리가 자궁내로 들어가 있는 경우나 뒷다리가 먼저 나온다든지, 태아가 옆으로 누워 있다든지 하면 진통이 약하고 휴지기가 길고 복압이 없는 경우에도 분만은 지연되며 태아가 사망하기도 한다.

치료 : 양수가 터지고도 3시간 이상 경과하면 난산을 염려하여 주시하여야 하며 난산으로 판단되면 즉시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위치로 정복시킨 다음 인공배출시킨다. 만일 산도 협착으로 태아 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복수술을 하여 어미와 태아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자궁경관 개장부전으로 태아가 폐사되어 모체내에서 부패되어 제왕절개로 태아를 적출하는 장면

② 질 및 자궁탈(Viginal & Uterine prolapse)

원인 : 난산으로 인해 질 및 자궁인대의 이완이 오거나, 임신중 운동부족, 태아과태, 영양불량 등으로 난산을 초래한 후유증으로 발생한다.

증상 : 산후에 등을 구부리고 배뇨자세를 취하거나 계속 뒤에 힘을 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질이나 자궁이 탈출되면

점막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암적색으로 변하고 울혈되며 부종되어 용적이 더 부풀어오른다. 방광과 직장을 압박하여 배뇨곤란과 배변곤란을 초래한다. 빨리 정복조치 하지 않으면 흙위에 앉아 질 및 자궁점막이 손상되고 출혈되면 예후가 나빠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치료 : 생리적 식염수로 깨끗이 닦고 베타딘 용액으로 소독하며 탈출된 질과 자궁을 정복시킨다. 부어 올라 정복이 곤란하면 2% 명반수로 수렴시키고 정복한다. 만일 계속 힘을 주어 정복이 잘 안되면 미추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여 재탈출을 방지하고 외음부를 봉합해 준다.

③ 유산증(Abortion)

원인 : 임신기 만료 전에 임신이 중절되어 태아가 사산되는 것을 유산이라 하며 조기 유산과 임신말기 유산이 있다. 유산의 원인은 전염성 유산과 비전염성 유산으로 대분되는데 사슴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전염성 유산의 경우로 타박이나 외상 등 기계적 압박, 사료의 변패, 발효에 의한 중독 등이 주원인이다.

증상 : 조기 유산은 징후를 발견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말기 유산은 식욕부진 불안해하고 외음부에 점액이 흐르거나 계속적으로 힘을 주는 노책 현상을 볼 수 있다. 사산된 새끼를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부패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 : 태아의 사산 여부를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는 인공적으로 배출시키며, 자궁을 깨끗이 세척하고 자궁수축제, 항생제 등을 주사한다.

④ 후산정체(Retention of placenta)

원인 : 분만후 태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궁내에 정체되는 것을 말하며 영양불량, 운동부족 등 사양관리의 결함이 주원인이며, 유산이나 난산일 때는 후산정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증상 : 후산이 분만후 6~8시간 이내에 배출되면 정상적이나 그 이상을 경과하여도 태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후산이 정체되어 2~3일 경과하게 되면 식욕이 감퇴되고 후산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중독증상을 일으키거나 자궁내막염을 초래하여 불임증을 유발한다.

치료 : 분만후 2~3일후 정체된 후산물을 제거시키고 자궁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며 "보루스"정을 자궁내 넣어둔다. 처치후 자궁 수축제 및 항생제 등을 주사한다.

⑤ 자궁 내막염(Endometritis)

원인 : 난산, 후산정체 등이 주원인으로 비위생적으로 처치하여 감염이 자궁내에 일어난 경우이다.

증상 : 자궁 내막염은 자궁점막에 화농성 염증을 일으킨 경우로, 사슴이 앉았다가 일어난 곳에 농이 섞인 점액이 배출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배농이 안되면 자궁내에 농이 저류하므로 자궁 축농증을 병발시키기도 한다.

치료 : 생리적 식염수에 베타딘 용액을

섞어 깨끗이 세척하여 배농시킨 후 항생제나 설파제를 주입한다.

⑥ 불임증(Sterility)

원인 :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인하여 번식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불임증이라 하며 이상발정, 즉 무배란 발정이나 지속성 발정 등이 나타나거나 영구황체(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난소에 황체가 장기간 존재하여 무발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난소낭종(호르몬의 과잉 또는 부족에서 발생), 난소발육 부진 등이 불임증의 원인이 되며 자궁내막염 등 질환도 불임증의 원인이 된다.

증상 : 무발정 증상을 보이는 경우와 발정은 자주와 교미를 하나 계속 재발정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즉 너무 말라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너무 비만하거나 난산의 경력이 있는 사슴에서 주로 발견된다.

치료 : 원인과 개체별 요인을 파악하여 치료해야 하는데 우선 사양관리의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호르몬 처치나 자궁의 질병 치료 등은 전문 수의사에 의뢰하여 치료한다.

10. 기타질병(Miscellaneous disease)

① 제대감염증(Umbrical cord infection)

원인 : 분만된 새끼의 탯줄을 통하여 세균이 감염되어 질병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제대주위염도 포함된다. 주로 오염된 사육장에서 새끼를 분만하므로서 탯줄과 탯줄 주위에 감염을 초래하고 화농되는 경우이다.

증상 : 분만된 새끼가 3일 이내에 급작이 폐사하는 질병 중의 하나로 탯줄을 타고 감염된 세균이 간에 이행되어 급성간염을 초래하여 폐사하기도 하며 간염에 저항하고 있는 사슴은 눈에 백태가 끼어 허옇게 변한다. 또한 제대 주위염이 심하면 화농이 되고 제대 주위 조직이 붓고 화농 물질이 형성되면서 열이 나고 설사를 한다. 자록 설사 원인 중 제대감염증으로 인한 설사가 많다.

치료 : 제대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강옥도로 제대 끝부위를 지진다. 화농이 되어 있으면 화농물질을 배농시키고 주위조직을 깨끗이 긁어내어 철저히 소독하고 항생제, 소염제 등을 주사한다.

② 간염(Hepatitis)

원인 : 주로 세균이나 진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며 농약 등 화학적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농후사료의 과다급여로 간의 지방변성 등을 초래하여 발생되기도 한다. 어린 새끼의 제대 감염증도 급성 간염의 원인이 되며, 위염으로 인하여 위점막 융모의 상처를 통해 세균이 감염되어 간에 이행하여 간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곰팡이 사료에 의한 독성에 중독되어 간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증상 : 식욕이 점차 떨어지고 심한 경우 복수가 차 오르는 경우도 있다. 급성 간염의 경우는 식욕을 절폐하고 열이 오르며 급성으로 폐사하기도 하며 만성인 경우는 차츰 여위어 가고 눈이 혼탁해지며

원기가 저하된다. 간혹 변비나 설사를 초래하고 중증의 경우는 발열, 경련,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치료 : 비타민, 메치오닌 등 강간제와 이담제, 항생제 등과 포도당 등 영양 수액을 주사한다.

▲ 발정기시 숫사슴의 공격으로 늑골이 골절, 농양을 제거하는 모습

③ 방사선균증(Actinomycosis)

원인 : 잇몸에 상처를 입어 치조에 염증이 파급되고 특히 방사선균이 약골에까지 침범하여 구멍을 형성하고 그 속에 고름까지 생기는 병소를 나타낸다.

증상 : 상악골이나 하악골이 부어오르며 만성적으로 이환되는데 풀을 저작(씹는 행위)하기 곤란하여지고 일부 풀 덩어리가 입안에 정체되어 볼에 혹이 생긴 것 같이 보인다. 종장(부어오름)된 부위가 진행되어 피부면에 누공이 생기면 끈적끈적한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치근부에 병변이 생기면 치아가 흔들리고 저작 곤란으로 사슴이 까칠해지고 영양불량상태를 초래한다.

치료 :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에 의해 환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요드징크로 자주 소독한다. 또한 페니실린과 스트랩트마이신을 주사한다.

④ 파상풍(Tetanus)

원인 : 이 병은 토양속에 존재하고 있는 파상풍균의 아포가 상처로 침입하여 증식하여 생산된 독소가 운동신경계를 침범하므로서 수의근의 지속적인 경련성 강직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주로 못이나 철편에 찔려 발생하거나 절각시 오염된 마취 바늘이나 절각톱 등에 의해서도 발병된다.

증상 : 보통 2~15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며 인후두근육의 마비로 저작이나 음수가 곤란해지고 사지의 강직이 와서 보행을 잘하지 못하며 불안해하며 열이 고열이 되고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안면근육 마비로 눈동자가 돌아가 하얀안검이 드러나 보인다.

치료 : 항독소혈청(테타누스 안티톡신)을 30,000Iu 정도 주사하며 해열제, 페니실린제제 등을 주사하고 크로로푸로마틴을 사용하여 진정시킨다.

⑤ 포획근염증(Capture myopathy)

원인 : 사슴을 포획하거나 이동할 때 근육에 이상 병변이 생기는 것으로 오래 뛰거나 과로로 인해 발병된다.

증상 : 심급성일 경우에는 심한 스트레스로 폐사에 이르기도 하며 고열, 호흡촉박, 심박동이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 파열되는 손상을 입기도 하며 식욕이 없고 암적색 혈뇨를 발하기도 한다.

치료 : 불안하지 않게 안정을 유지시켜야 하고 일단 발생시 체중 kg당 4~6mg의 중조를 주사하거나 비타민 E 등을 주사한다. 한국양록